



동굴도 : 조선 후기의 도화서 회원들이 동굴인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각 및 궁궐 전경을 조감도식으로 그린 16폭의 궁궐 배치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위치한 원남동 일대를 배경으로 한다. 국보 제249호,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 본 페이지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단체 등의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암환자 증상완화를 위한 방사선치료의 적정 이용률 제고

안용찬, 이상욱, 박희철, 윤상민, 김학재, 금융섭, 신승수, 신상진, 김진희, 이윤재, 박지애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월 27일에 뼈전이 암환자의 증상완화 목적 방사선치료의 적정 진료 및 이용에 대한 패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뼈전이 암환자의 증상완화 목적 방사선치료에 관한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연구책임자	안용찬(성균관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발표자	박희철(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학재(서울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금융섭(연세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윤상민(울산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토론자	김도연(동국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김우철(인하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류백렬(울산대학교 혈액종양내과) 손주혁(연세대학교 혈액종양내과), 안성지(전남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이창걸(연세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정원규(건양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한지연(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체계적 문헌고찰

암환자에서 뼈전이가 있을 때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조사되는 방사선치료에는 단일조사와 분할조사 방법이 있다. 단일조사는 일회 치료에 다소 고용량의 방사선(대개 8Gy)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분할조사는 저용량을 여러 번에 나누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선량과 조사횟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2주에 걸쳐 30Gy를 10번에 나누어 사용한다. 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결과 단일조사는 분할조사에 비해 통증완화 뿐만 아니라 병적 골절 빈도, 척추신경 압박 비율 등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증상의 재발로 인한 추가 치료는 2.5배 높았다.

❖ 주제 선정 배경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식적 방사선치료에서 단일조사와 분할조사 간에 효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지만, 분할조사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국내 진료관행에서 개선책을 찾고자 주제로 선정하였다.

단일조사 주장

-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및 진행기 암환자들에서 분할조사를 시행할 경우, 치료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으며, 장기 입원을 요하는 등 환자 및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 삶의 질 등을 고려할 때, 단일조사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단일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분할조사 주장

- 오랜 기간에 걸친 관행적인 치료법으로 충분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들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 단일조사의 경우, 재치료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회 조사선량이 많아 방사선 치료에 의한 부작용의 우려가 증가한다.

국내 임상진료 현황 파악 - 설문 조사

뼈전이 암환자의 예후에 따른 방사선 치료방법에 대한 국내 임상진료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대한 방사선종양학회 정회원 177명 중 88명(49.7%)이 응답을 하였다. 뼈전이 환자의 예후를 좋은 경우, 중간 경우, 나쁜 경우로 나누어 제시한 후 방사선 치료 1회 조사선량과 치료횟수를 조사한 결과, 단일조사는 좋은 예후에서 2명, 나쁜 예후에서 1명만 시행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외 모두 경우는 분할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국내 임상진료 현황 파악 - 후향적 연구

실제 시행되고 있는 방사선 치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시내 소재 3차 병원 4곳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다발성 뼈전이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폐암 환자 192명이 대상 이었고, 이들 환자에서 268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다양한 방법 중 30Gy를 10회에 분할 조사하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조사는 5.2%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뼈전이 암환자의 증상완화를 위한 단일조사와 분할조사는 통증완화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문헌고찰에서 나타난 반면, 국내 진료현장에서는 단일조사에 비해 분할조사가 주로 시행되고 있어 과학적 근거와 실제 진료관행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토론회 - 활발한 논의와 모색

이번 토론회에서는 뼈전이 암환자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사선치료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실제 진료 관행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의 장이 되었다. 또한 과학적 근거가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되기 힘든 많은 현실적 장벽과 근거와 실제 진료관행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 모색을 위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향후 국내 현실을 반영한 최적의 분할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NECA**